

▶ 1면에서 이어짐

실수를 빚었던 외대 주보현(한국어학 2014) 선관위원장은 “개표 자체가 신중하게 진행돼야 하는 것이고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선관위원장으로서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실수가 발생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선관위 구성은 지난 10월 31일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공지됐다.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선관위원들은 개표가 시작된 22일까지, 약 3주간 세칙을 숙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공식적인 투표와 개표에 대한 교육은 각각 1차례만 진행됐을 뿐이다. 중선관위 박수지(산업경영공학 2014) 위원장은 “중선관위 회의 때마다 필요한 부분의 세칙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해왔다”며 “공식적으로는 중선관위가 모여 각 선관위원장에게 투표 일주일 전에 투표에 관한 교육을, 개표 이를 전에 개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하의 선관위원들에 대해선 각 선관위원장이 교육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중선관위 구성 이후 3주의 기간

교육은 투표·개표 각 1차례



지난 11월 23일 국제경영대학에서 진행된 총학생회 개표 당시 (사진=양윤혁 기자)

중선관위 박 위원장은 교육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총학과 총여 선거에서도 문제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총학 개표과정에선 ▲국제대학 투표소의 총학, 총여 선거인명부가 뒤바뀌고 ▲국제대학 투표소에 위치했던 선본 측 참관인의 선거인명부 서명이 누락됐으며 ▲생명과학대학 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는 생명과학대학 선관위원장이 1차 밀봉 서명을 하지 않았다. 또한 ▲체육대학 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는 체육대학 선관위원장이 총 3번 서명해야 했으나, 3칸에 걸쳐 한 번만 서명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해 오후 8시 30분에 시작된 개표절차는 결국 지난 24일 오전 12시 15분이 돼서야 실제 개표에 들어갔다. 결국 총학 개표는 오전 5시 30분 경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현재의 선거세칙에는 앞서 열거한 것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지침이 없다. 결국 개표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매번 중선관위와 선본 측의 합의를 통해 조치를 취했다. 심지어 선거의 유·무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오차율’ 계산 방식마저 중선관위 합의를 통해 변경한 바 있다.

선거시행세칙 36조에서는 선거구를 ‘독립적으로 학생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단위로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이 있는 건물과 활동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투

“

현행 선거시행세칙,

발생 문제에 대한 지침없어

결국 매번 중선관위 합의로

”

* 룰미팅 : rule-meeting
중선관위와 후보자가 만나 포스터, 홍보 방식 등 선거 세부 지침을 합의한다.

표소와는 다른 개념으로, 독립적인 학생회장을 선출할 수 없는 멀티미디어관과 학생회관은 선거구로 인정될 수 없다. 지난 선거까지는 각 단과대학을 선거구로 보고, 총학 개표에 있어서도 단과대학별로 오차율을 산출했다. 반면에 이번 총학·총여 선거에서는 중선관위 합의에 따라 ‘학교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해석해 모든 투표소의 오차율을 합산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세칙의 근간인 선거구 개념

오차율 산정 방식까지 흔들려

기존의 해석대로 오차율을 계산할 경우 분명 문제가 존재한다. 선거구를 각 단과대학으로 판단할 경우 오차율이 3% 이상 나온 선거구만 재선거를 진행하게 된다. 이럴 경우 기존에 투표했던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모두 재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세칙 상 제시된 내용이 없어 모호한 상황이다.

특히 멀티미디어관이나 학생회관 투표소 같이 단일 선거구가 아니면서 오차율 집계는 별도로 해왔던 곳에서 오차율이 3% 이상 발생할 경우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했던 사람만 다시 투표할 수 있다면, 일일이 선거인명부에서 대조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원활한 진행이 불가능하다. 반대로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 할 수 있는 사람 모두 재투표한다면 사실상 전체 재선거와 다름 없게 된다. 때문에 이번 중선관위 합의를 통해 결정한 것과 같이 종학·총여 선거에서는 ‘학교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보고 오차율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대해 박 중선관위원장은 “작년과 같이 각 투표소 별 오차율을 적용하게 되면 재선거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총학의 회원은 모든 학우이므로 학교 전체를 선거구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거시행세칙 51조 3항 마에는 ‘각 선거구 별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인터넷명부 간의 오차가 3% 이상일 경우 선거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돼있다는 점이다. ‘각 선거구별’이라는 표현 자체가 복수의 선거구를 염두에 둔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일 ‘선거구’로 해석한 중선관위의 결정과 충돌하게 된다.

이외에도 현행 선거시행세칙의 허점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총학회장의 연임 가능 여부, 연임 시 중선관위 구성의 특

수성상 발생할 수 있는 유착 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더불어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메신저를 통한 선거활동의 구체적 범위와 제한 사항도 없다. 결국 이런 문제 모두 중선관위가 합의를 통해 결정했다. 게다가 현재 종이테이프와 청 테이프로 투표함을 밀봉하고 각각 박스에 걸치게 서명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관리돼야 하는 투표함 관리조차 관례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런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선거시행세칙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는 매년 있었으나, 대대적인 수정 없이 일부 문구를 수정하거나 조항을 추가하는 선에서 그쳤다.

무엇보다 중요한 투표함 관리
관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현재 중선관위원장과 함께 총학회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박수지 부회장 역시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박 부회장은 “중선관위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세칙의 모호함과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인지했다”며 “오는 선거가 진행되기 전에 확대운영위원회를 진행해 세칙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

● 1차 학생 신청기간 : 2016.11.17.(목) 09:00 ~ 12.13.(화) 18:00

※ 일·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마감일 제외)

※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할 것 (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 원활한 신청을 위한 권역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기간 내 권역과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나, 가급적 권역별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할 것을 장려함

수도권(서울, 경기 지역)	수도권 외
2016.11.17.(목) ~ 12.08.(목)	2016.11.22.(화) ~ 12.13.(화)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16. 11. 17.(목) 09:00 ~ 12. 16.(금) 18:00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 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 상담센터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제10기 한국 대학생 박물관·미술관 문화시민봉사단 모집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에서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진행되는 제10기 한국 대학생 박물관·미술관 문화시민봉사단을 모집합니다. 대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본 박물관을 비롯한 전국의 7개 박물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박물관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http://www.museum.or.kr/>)

● 신청자격 : 박물관·미술관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생 및 휴학생

● 참여인원 : 000명

● 참여기간 : 2017년 1월 ~ 2월 말(세부일정은 관과 봉사자 간 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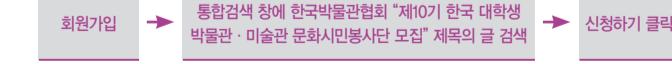
● 참여혜택

- 자원봉사활동 횟수에서 별급(※최소 50시간 이상 활동자에 한함)
- 박물관·미술관관련 교육(기본소양교육) 12월 23일(금) 예정
- 교육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별도 공지

● 모집기간 : 11월 3주 ~ 12월 3주 (자세한 일정은 추후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 접수방법

Step1. 문화체육자원봉사홈페이지(<http://csv.culture.go.kr>) 통해 접수
(봉사 원료 후, 봉사활동확인서 발급을 위해 필수기입 요망)

Step2. 서류 제출(kormuseum@hanmail.net)으로 제출

- ①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신청서(한국박물관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 ② 재학/휴학 증명서

● 서류전형/면접 : 12월 3주 ~ 12월 31일(토) 해당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진행하며, 봉사희망 박물관·미술관 면접 결과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배치 예정

● 문의 : 02-795-0959 / 김보현 (한국박물관협회 담당자)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2016-2 온라인 성인지 향상 이벤트

성평등상담실에서는 경희 대학생들의 성 인지 향상을 위해 온라인 향상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재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대상 :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 재학생
기간 : 2016. 11. 14(월) ~ 2016. 12. 11 (일)

● 참여방법

1. 경희대학교 성평등상담실 홈페이지 접속한다.
<http://web.khu.ac.kr/~happyyou/>

2. 홈페이지 첫 화면의 흑백 예방 온라인 교육 (1~4)을 모두 수강한다.

3. 홈페이지 흑자사랑의 흑백 예방 키즈 양식 다운로드 후 디안을 작성한다.

4. 성평등상담실 이메일로 제출한다. happyyou@khu.ac.kr

● 다 맞은 사람들은 한화에 추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상품을 드립니다.

1등 셀리 보조배터리 (4명)

2등 몰스킨 X 라인 디자이너 (6명)

3등 브라운 모슈 텁블러 (4명) or 브라운 32GB USB (4명)

4등 초코쿠션 (2명) or 5단 미니 우산 (3명)

5등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30명)

● 결과 발표 : 2016. 12. 13 (화) 14시 흑자사랑 및 개별문자

